

사설

불자의식조사 결과에 부쳐

본사와 우리는 선수가 공동으로 불자들의 실행 전반에 관한 의식 실태를 조사했다. 우리의 시대적 흐름이나 종교 환경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정기적으로 불자들의 실행상황과 의식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호법과 흥법의 절경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불자들은 불교적인 가치의 실현과 불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불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참된 가치를 찾고 싶어 불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참된 불자란 실천을 중시하며, 참된 불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실천의 부족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부처님을 명행족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는 것과 실천이 합일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불자들

역시 실천이 참다운 불자의 길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이든 아니면 사회적 실천이든 불교적 가치가 소중한 만큼 그에 수반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우려할 일은 이번 조사 결과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보다 수행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종의 영향이겠지만 적어도 참된 수행을 위해서도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경전이나 교리는 바람직한 수행의 안내서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다. 경전과 교리가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수행은 직관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두 요소가 잘 조화되어야 건전한 불교적 실행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연등축제 세계의 잔치로 키우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5월 4일 펼쳐진 연등축제는 감동과 환희의 한마당 잔치였다. 서울의 연등축제에는 20만여 불자와 시민 외국인 관광객이 동참해 흥을 나누었다. 이번 연등축제를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외국인의 참여다.

외국인의 연등축제 참여가 해를 더해 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등축제 본래의 의미가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나누고 나와 내 이웃, 중생계의 모든 생명이 더불어 아늑을 깨우쳐 보다 밝고 건강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제에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은 한국 불교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는 일이다. 단지 외형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표현되는 다

양한 정신과 문화를 그들에게 체험시키는 계기이기도 더욱 의미가 크다.

연등축제는 1999년부터 서울의 문화축제로 승격되었고 우정국로에서 펼쳐지는 축제마당은 이제 전국 최대의 잔치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큰 판에 몰려드는 외국인들, 그들은 한국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불교를 떠올릴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포교가 아닌가.

이제 연등축제를 국내 최고의 축제에서 세계 최고의 축제로 키워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우리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일상적인 홍보 수준을 넘어, 관광 상품 이상의 가치로 승화시킨 연등축제를 만들어 세계인을 사로잡을 때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쉽게 실현될 것이다.

한국불교 찾는 외국인수행자 계속 늘어

종단차원 교육·수행체계 시급

화계사 국제선원 안거때마다 20~30명 방부

국내에서 수행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교육 및 수행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연등축제에 참가한 외국인 인이 2만여 명에 달하고, 8일 조계사 봉축 법요식에서도 외국인 행자들이 연등 축제의 모습에 눈을 뜨는 등 한국불교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수행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막상 이들이 한국불교의 진수를 체득하고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이 외국인 행자들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안거 때마다 3~4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행자교육원에 입교하고 있다. 지금까지 행자교육원을 수료한 외국인 사미니(나)만 4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20여 명이 국내에 남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욱이 화계사 국제선원의 경우 매 안거 때마다 20~30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있을 정도로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예비승(사미니·나)이 아닌 비구(나)계를 구족하고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올해야 4명(비구 3, 비구니 1)이 구족계를 받았다. 이는 종법상 수계 요건을 국내 스님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실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사미니(나)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국내에서 출가하는 외국인 수행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홍보 효과는 크지 모르지만

총지종 종령 록정대종사 원적

13일 역삼동 통리원서 영결식



총지종 종령 록정(祿靜) 대종사가 4일 주석처인 성남 기로원에서 원적했다. 세수 84세, 법랍 50년. 1972년 총지종 정종에 참여한 록정 대종사는 종조 원정 대종사와 함께 총지종을 불교계의 주요 종단으로 우뚝 세운 장본인이다. 80년에는 원정 대종사에 이어 제2대 종령에 올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불교의 생활화, 생활

의 불교화를 실천했다. 이어 4, 6, 7대 종령을 지내며 종단 승직자와 교도들로부터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 받았다.

뿐만 아니라 72년 초대 중앙종의 회 의원, 74년 통리원장, 80년 유지재단 이사장, 89년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장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종단의 기틀을 다졌다.

종무일선에서 물러난 록정 대종사는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며,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널리 퍼졌다.

영결식은 13일 서울 역삼동 통리원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다. 애됨이 없이 불교의 생활화, 생활

“노선재검토위 결정 최대한 수용

고총리, 3개 북한산 노선에 편견없다”

고건 총리가 6일 북한산관동도로 노선재검토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부는 노선재검토 3개 노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정부종합청사 916호에서 열린 북한산 관동도로 노선재검토위 3차 회의는 신임 위원장인 김인제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소개와 각 분야별

연구조사계획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남동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 로마 교황청 한국대사

로마 교황청 한국대사 바티스타 모란디니 대주교가 6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방문,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교황청 메시지를 전달했다.

모란디니 대주교는 "천주교와 불교가 힘을 합쳐 세계 평화와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에 법장스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종교의 책무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 불교와 천주교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명우 기자

국회정각회장 선출 3년째 표류

여·야 서로 "회장직 맡아야" 주장 맞서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개원 이후,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회장 선출 문제를 놓고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불자위원 모임인 '연등회'는 관례대로 집권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회원 수가 많은 야당에서 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불자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25명, 민주당 12명, 자민련 1명 등이다.

양 당 불자회가 회장직에 연연하는 이유는 원내 대표성을 갖고 불교계와 접촉하기 위해서다. 또 양 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한 '불심잡기'도 한 몫을 했다.

최근 민주당 연등회장 김기재 의원과 한나라당 불자회장 하순봉 의원이 만나, '김 의원이 회장을, 하 의원이 명예회장' 맡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불자회 일부 의원들이 난색을 보여, 여전히 접점을 못 찾고 있다.

불교계는 "정치논리보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정각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이라크 어린이에게 자비성금 천태종은 6일 이라크 어린이 돌기성금 5백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천태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무연 스님은 "천태종 복지재단에서는 지난 달 19일 시작한 이라크 어린이 돌기 캠페인을 5월 한 달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이라크지진 긴급의료단'에 전달돼 전쟁피해 이라크 어린이들의 치료비용 쓰인다.

'연등' 민평 심민섭

세계를 감싸기 그렇게 힘듭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유승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圓 **총지종 종령 록정 대종사** **寂**

現 總指宗 宗領이신 祿靜 大宗師께서 世緣을 다하시어 총기 32년 (불기2547년) 5월 4일
 오전 5時 耆老院에서 入寂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결일시 : 총기 32년 5월 13일(火) 오전10시
 ◆ 영결식장 : 총지종 통리원
 ◆ 다 비 장 : 성남 시립 화장장

◆ 종단장 장의위원회 명단

- 고 문 : 법장화, 총지화, 경관, 수성, 효강, 원봉, 혜산
- 위 원 : 대자행, 불멸심, 법장화, 총지화, 삼정행, 일성혜, 하정, 수행월, 상지화, 경관, 대도행, 법상원, 주신계, 송하, 원봉, 수성, 혜산, 대관, 효강, 시각화, 최상관, 혜암, 정정심, 밀공정, 자선화, 법지원, 지선행, 환수원, 심지장, 안주화, 법정, 사홍화, 법수원, 묘섭계, 일신행, 수중원, 법상인, 정법계, 정일혜, 인법계, 연등원, 원만원, 공덕성, 선도원, 정인화,
- 섭외부: 법경, 원경, 지현, 법선, 조영표, 왕진수, 오성용, 하지현, 서정희, 박경란, 김옥, 김도연

재단법인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임원 일동
 학교법인 관음학사 임원 일동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임원 일동
 역삼개가노인복지센터 임원 일동
 역삼고령자취업알선센터 임원 일동

정법수, 지희심, 인덕심, 수심정, 승효계, 인선, 무공, 경원, 시정, 지공, 지광, 진일심, 정원심, 수현, 혜안정, 유가해, 묘심해, 자심관, 불명각

• 집행위원장: 지성
 • 집행위원: 인법계, 대원, 법등
 • 총무부: 인선, 법일, 운오, 승원
 • 의전부: 화령, 도현, 일여심, 지정
 • 재무부: 안도영, 정계월, 정진심

불교 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02)552-1080~3